

2024-02-05 (2024-06호)

02월 05일 로이터 뉴스레터

## ▶ 달러/원 주간 전망

### • 강한 달러와 핫한 코스피

서울, 2월5일 (로이터) 박예나 기자 -

이번 주 달러/원 환율은 글로벌 달러 움직임을 따르면서도 설 연휴를 앞둔 수급 따라 변동성을 키울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말 기록적인 외국인 주식 사자세가 지속될지가 관건이다.

예상되는 주간 환율 범위는 1,310-1,350원이다.

시장 전망을 훌쩍 뛰어넘은 비농업부문 고용지표 결과를 통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다시 한번 꺾였고, 이에 지난 주말 미국 채권금리와 달러는 상승 반격에 나섰다.

미국 경기 연착륙 전망에 한층 힘이 실리면서 증시를 둘러싼 투자심리가 지탱되는 가운데 시장은 금리 인하 지연에 따른 강달러 모멘텀 확산 정도를 주목할 전망이다.

지난 2일 코스피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이 올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역대 2번째 규모인 1.9조원어치를 집중 매수한 결과로 정부의 증시 부양 기대에 힘입은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식에 대한 외국인들의 폭풍 매수가 연이틀 이어졌다. 이에 금주 외환시장참가자들은 외인 매매 행보를 주목할 것으로 예상된다.

월말 네고에 이은 외인 주식 매수 관련한 달러 매물에 원화는 위안화의 동조화 수준은 크게 떨어진 반면 코스피와 밀접하게 연동돼 움직이고 있다.

1월 중순 경에는 0.9(20일 기준)를 훌쩍 넘었던 원화와 위안화 동조화 정도는 현재 0.4 밑으로 푹 떨어져있다. 한편, 코스피와 원화는 0.8 이상을 기록 중이다.

주 후반 발표되는 중국 물가지표를 통해 중국 디플레이션 리스크를 재차 가능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국 금융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이 있다. 전주 상하이지수는 6.2% 급락해 2018년 10월 이후 최대 주간 하락폭을 기록했다.

미국 서비스업 PMI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비롯한 주요 연준 인사들의 발언 등을 통해 달러의 추가 방향성이 나올 수 있고 이에 원화의 방향성도 대체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파월 의장은 4일(한국시간 5일 오전 9시) CBS 뉴스에 출연할 예정이다. 다만, 외인 주식 관련 매물을 비롯해 설 연휴를 앞둔 수급 대응 따라 원화의 자체적인 흐름이 형성될 여지도 열어둬야할 듯하다.

또한, 미국이 지난달 요르단 미군 기지에서 미군 3명 사망에 따른 친이란 세력에 대해 보복 공격을 개시하고, 예멘 반군에 대한 추가 공격도 단행하는 등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확산 여부도 여전한 변수다.

최근 방향성을 유보한 채 1,330원대를 중심으로 갇힌 흐름을 보이는 달러/원은 금주 대내외 재료를 살피면서 위·아래 지지력을 수시로 테스트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확실한 대외 여건과 함께 연휴 전 수급 발 변동성 리스크는 감안해야할 듯하다.

국내 주목할 이벤트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확대 거시정책협의회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작

년 12월 국제수지(잠정) 등이다.

(편집 문윤아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주간 세계 5대 이슈

### ⊙ 주식 VS 채권

1월에 주식이 채권보다 두각을 나타냈다면 2월에는 그 반대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꺾이고 미국 지역 은행 주가가 급락하면서 지난 봄 은행 위기의 기억을 되살려 갑자기 주식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지난달 세계 증시는 상승세로 마감했지만, 연준 회의 직후인 31일 S&P500지수가 9월21일 이후 최대 낙폭을 보인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월 수익률이 대부분 상승한 국제 시장은 안전자산 선호와 미국 ADP 고용지수, 유로존 및 중국 제조업 활동 등 주요국 경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조짐에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중앙은행 발언에 초점을 맞춘 이번 주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다. 그리고 2024년 초부터 시작된 채권과 주식의 디커플링은 계속될 것이다.

### ⊙ 中 인플레이션 지표

8일 발표되는 중국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지속적인 수요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 취약한 투자심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경제의 건전성을 가늠할 수 있는 다음 시험대가 될 것이다.

1월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중국의 힘든 회복세를 부각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디플레이션 압력이 심화됐는지 여부가 더 큰 관심거리다.

중국 증시는 이미 새해를 힘들게 시작하고 있다. 우량주 지수인 CSI300지수는 1월 6% 하락하며 6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최근 중국의 지원책이 일단 투자자들을 안심시킨 것으로 보이며,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10년 만기 중국 국채 수익률은 20년 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 ⊙ 실적 스포트라이트

이번 주 발표될 미국 기업 실적은 주가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린 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대형 기술업체들은 이미 대부분 실적을 발표했고, 이번 주에는 일라이릴리, 월트디즈니, 코노코필립스, 펩시코 등 S&P500 기업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1월31일 기준 LSEG 데이터에 따르면 S&P500 기업의 4분기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금까지 80%의 기업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는 지난 네 분기 평균 상회율 76%에 비해 높은 수치다.

투자자들은 2023년보다 이익이 더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2024년에 대해 기업들이 어떤 인사

이트를 제공할지에 주목할 것이다.

#### ◎ **英 부동산 회복 조짐?**

영국은 경기 침체를 피했다. 인플레이션은 둔화하고 있고 임금은 유지되고 있으며 대출 금리는 완화되기 시작했다. 이번 주에는 신차 판매와 모기지 금리 뿐 아니라 부동산 가격과 활동 등 소비자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나올 예정이다.

영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집이다. 배럿, 레드로우, 벨웨이 등 일부 대형 건설업체가 실적을 발표한다.

지난 분기 주요 건설업체들은 2024년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경고를 내놓았다. 하지만 한 가닥 희망이 있을 수도 있다. 영란은행의 1월 데이터에 따르면 영국 대출기관들은 6월 이후 가장 많은 모기지를 승인했으며, 모기지 금리가 3년여 만에 처음으로 하락했다.

#### ◎ **큰 투표, 작은 변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들 중 일부에서 선거가 치러진다.

폭력 사태 속에 파키스탄의 총선이 8일로 다가왔다. 파키스탄은 30%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과 통화 약세 등 경제 위기와 싸우고 있다.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가 선두 주자로 나선 가운데 주요 경쟁자인 임란 칸 전 총리는 수감되어 출마가 금지됐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네시아 유권자들은 오는 14일 대선을 앞두고 있으며, 유력 주자인 프라보워 수비안토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멋진 독재자'로 불리는 엘살바도르의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은 헌법상 연임 금지, 경제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 시민과 인권에 대한 가혹한 탄압 비판에도 불구하고 4일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 ▶ 美주식시장 / 주간전망

### • 美 경제 호조에 무색해진 금리 인하 전망

뉴욕, 2월5일 (로이터) -

미국 경제지표의 호조는 연방준비제도가 시장의 기대보다 통화정책을 덜 완화할지라도 증시 상승이 지속될 수 있을지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연준이 금리 인하로 선회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2023년 말 주가는 급등했고, 1월에는 S&P500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수는 2023년 24% 급등한 후 올해 4% 상승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는 연준이 인플레이션 반등을 초래할 리스크 없이 금리를 인하하기에는 경제가 너무 과열됐을 수 있다는 증거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며칠 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금리 인하 기대를 꺾은 가운데 2일 발표된 블록버스터급 미국 고용지표는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또 한번 시사했다.

매튜 미스킨 존 핸콕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 공동 최고 투자 전략가는 "4분기와 최근 주식 랠리를 되돌아보면 상당 부분이 연준의 피벗에 대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인데, 연준의 피벗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CME 페드워치 톨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선물은 5월1일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확률을 전일 90% 이상에서 70%로 낮춰 반영했다.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주일 전 50% 바로 아래에서 약 20%로 떨어졌다.

시마 샐 프린시펄 자산운용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논평에서 2일 고용보고서를 보면 "시장이 반영했던 6~7차례의 금리 인하 전망은 오프사이드인 것 같다"고 말했다.

2일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는 35만3000명 증가했는데, 이는 로이터 조사에서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18만명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다. 또 11월과 12월 수치는 기존에 보고된 것보다 12만6000명이 상향 수정됐다.

많은 투자자들은 특히 예상보다 양호한 기업 실적과 함께 이처럼 견조한 성장세가 증시에 긍정적이라고 믿고 있다. 고용지표 발표 후 S&P500지수는 메타플랫폼과 아마존닷컴의 주가가 실적 발표 후 각각 20%, 8% 상승한 데 힘입어 사상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2024년 S&P500 기업의 이익은 2023년 3.6% 증가에 이어 1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대는 이번 주 일라이릴리, 월트디즈니, 코노코필립스 등의 실적 발표를 통해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키스 레너 트루이스트 어드바이저리 서비스 공동 최고투자책임자는 "나는 금리 인하가 더 많고 약한 경제보다는 금리 인하가 더 적지만 강한 경제를 선호한다"고 말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 애널리스트들은 2024년 S&P500지수가 현재 수준보다 10% 이상 높은 5,500에 마감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엔비디아와 같은 종목을 끌어올린 인공지능 낙관론이 이러한 상승세를 이끌 것이라고 애널리스트들은 내다봤다.

그러나 추세 이상의 성장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 반등 우려라는 또 다른 문제가 대두된다.

러셀 프라이스 아메리프라이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2일 메모에서 "1월 고용 증가 수치는 강했고, 어쩌면 너무 강했을 수도 있다"면서 "지속될 경우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는 강한 임금 상승 징후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 상업용 부동산과 같이 이미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 분야에도 스트레스가 가중될 수 있다.

뉴욕커뮤니티뱅크의 주가는 배당금을 삭감하고 깜짝 손실을 발표한 뒤 주가가 급락해 지역 은행 전반에 대한 우려를 불러왔다.

금리가 현재 수준에서 오래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성장세가 강해지면 국채 수익률이 상승할 수 있다. 수익률이 높아지면 주식에 압력을 가할 수 있고, 금리가 높아지면 경제의 자본 비용을 높인다.

LSEG 데이터에 따르면 투자자들은 여전히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를 약 125bp 반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주 초의 약 150bp에서 줄어든 것이지만, 여전히 연준이 예상한 75bp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금주 국내 경제 주요 일정

2월5일(월)

- ⊙ 한국은행: 2024년 1월말 외환보유액 (06:00)
- ⊙ 금융감독원: 원장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 (10:00)
- ⊙ 기획재정부: 「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 (10:00)
- ⊙ 기획재정부: OECD 2월 세계경제전망 (19:00)
- ⊙ 기획재정부: 1차관 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 (5일~8일, 영국 런던)

2월6일(화)

- ⊙ 기획재정부: 김병환 차관, 런던 투자자 설명회 결과 (10:00)
- ⊙ 한국은행: 빅데이터와 기계학습 알고리즘을 활용한 실시간 인플레이션 전망(real-time inflation forecasting)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확대 거시정책협의회 (14:00)

2월7일(수)

- ⊙ 한국은행: 2023년 12월 국제수지(잠정) (08: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 개최 (08:00)
- ⊙ 기획재정부: 김병환 차관, 글로벌 은행 현장방문 (10:00)
- ⊙ KDI: KDI 경제동향(2024. 2) (12:00)
- ⊙ 기획재정부: 부총리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 (14:30)

2월8일(목)

- ⊙ 한국은행: 금통위 본회의(비통방, 10:00)
- ⊙ 기획재정부: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 (10:00)
- ⊙ 기획재정부: 김병환 차관, 영국 런던 방문으로 양국 경제협력 강화 (10:00)
- ⊙ 기획재정부: 2024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 (14:00)

2월9일(금)

- ⊙ 설 연휴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서울, 2월05일 (로이터) - 금주 해외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날짜	시간	국가	지표	기간	로이터 전망	이전수치
2월5일	10:45	중국	차이신 서비스업 PMI	1월		52.9
2월5일	19:00	유로존	생산자물가 MM	12월	-0.8%	-0.3%
2월5일	23:45	미국	S&P글로벌 서비스업 PMI 확정치	1월		52.9
2월6일	00:00	미국	고용추이	1월		113.15
2월6일	00:00	미국	ISM 서비스업 PMI	1월	52.0	50.6
2월6일	08:30	일본	가계지출 MM	12월	0.2%	-1.0%
2월6일	19:00	유로존	소매판매 MM	12월	-1.0%	-0.3%
2월7일	08:50	일본	외환보유고	1월		1,294.6B
2월7일	14:00	일본	경기동행지수	12월		-1.4
2월7일	14:00	일본	경기선행지수	12월		-1.3
2월7일	17:00	중국	외환보유고	1월	3.217T	3.238T
2월7일	21:00	미국	모기지마켓지수	2월2일 주간		202.5
2월8일	05:00	미국	소비자신용	12월	15.00B	23.75B
2월8일	08:50	일본	은행 대출 YY	1월		3.1%
2월8일	08:50	일본	경상수지 NSA JPY	12월	1,018.9B	1,925.6B
2월8일	10:30	중국	PPI YY	1월	-2.6%	-2.7%
2월8일	10:30	중국	CPI YY	1월	-0.5%	-0.3%
2월8일	22:30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1월29일 주간	220k	224k
2월8-15일		중국	총통화(M2) 공급 YY	1월	9.4%	9.7%
2월8-15일		중국	신규 위안화 대출	1월	4,500.0B	1,170.0B

• 금주 해외 경제 주요 이벤트 (괄호 안은 한국시간)

2월5일 (일)

- ⊙ 호주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 (6일까지)
- ⊙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 블룸버그마켓츠 출연 (6일 오전 0시)
- ⊙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은행 총재, 연방준비제도 주최 화상 컨퍼런스 개최사 (6일 오전 4시)

2월6일 (화)

- ⊙ 호주 중앙은행 금리 결정 발표 (오후 12시30분), 기자회견 (오후 1시30분)
- ⊙ 패트릭 하커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로완공공정책연구소 행사서 연설 (오전 9시)
- ⊙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방은행 총재, 오하이오 은행인 경제서밋서 기조연설 (7일 오전 2시)
- ⊙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은행 총재, 그레이터 만카토 그로스 오찬행사 Q&A 참석 (7일 오전 3시)
- ⊙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연준 주최 화상 컨퍼런스서 개최사 (7일 오전 4시)
- ⊙ 휴장국가: 뉴질랜드, 대만 (14일까지)

2월7일 (수)

- ⊙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방준비제도 이사, 브루킹스연구소서 연설 (8일 오전 1시)
- ⊙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 보스턴경제클럽에서 연설 (8일 오전 1시30분)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워싱턴D.C. 경제클럽 토론 참석 (8일 오전 2시)
- ⊙ 미셸 보우먼 연방준비제도 이사, 연준 주최 컨퍼런스서 연설 (8일 오전 4시)

2월8일 (목)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블룸버그TV 출연 (오후 10시30분)
- ⊙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방은행 총재, 뉴욕 경제클럽서 연설 (9일 오전 1시30분)
- ⊙ 휴장국가: 인도네시아 (9일까지)

2월9일 (금)

- ⊙ 로리 로건 델러스 연방은행 총재, 태런트카운티 운송 서밋 Q&A 참석 (10일 오전 3시30분)
- ⊙ 휴장국가: 중국 (16일까지)



## ▶ 지난주 로이터 한글 뉴스 서비스 주요 기사

### • (분석)-주요국 금리 인하는 언제?... 인플레이션 전개 지켜봐야

런던, 2월2일 (로이터) -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하 시작을 선언하기를 열망하던 트레이더들은 1일(현지시간) 영란은행이 미국 연방 준비제도에 이어 임박한 통화완화에 대한 기대감을 꺾으면서 또 한 번 타격을 입었다.

영란은행은 금리를 16년 만의 최고치로 유지했으며, 방향을 바꾸기 전에 물가 압력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증거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연준도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15% 상승했던 글로벌 증시.MIWD00000PUS는 1일 하락세를 보였다.

### Fed sees lower rates on the horizon

The Fed says rates are likely to move lower in coming months but has pushed back on talk of a move as early as March.



Note: Chart frequency is monthly.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s (PCE) price index is used by the Fed as a benchmark for inflation.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Feb. 1, 2024

### ◆ 결정하지 못하는 중앙은행들

최근 몇 주 동안 시장에 반영된 연준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최고 90%에 달했지만 이제는 연준이 5월로 금리 인하 시작 시기를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1일 트레이더들은 영란은행이 조만간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도 축소했는데 장 초반 약 64%였던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장 후반에는 약 55%로 낮춰 잡았다.

애널리스트들은 유럽중앙은행, 연준, 영란은행 등은 인플레이션 하락을 보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확실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달 유로존 인플레이션은 예상대로 완화되었지만 근원 물가 압력은 예상보다 덜 떨어졌다.

인베스코의 수석 채권 매니저인 마이클 시비터는 선진국 동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 하락과 탄력적인 노동 시장, 탄력적인 성장 사이에는 일종의 긴장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 인하는 이루어질 것이지만 경제 성장이 빠르게 악화되지 않는 한 중앙은행들이 빠르게 완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NY멜론의 금융 이코노미스트이자 전 영란은행 이코노미스트인 세바스찬 비스마라는 경제 성장이 유지되는 동안 주식은 지지되어야 하지만 국채는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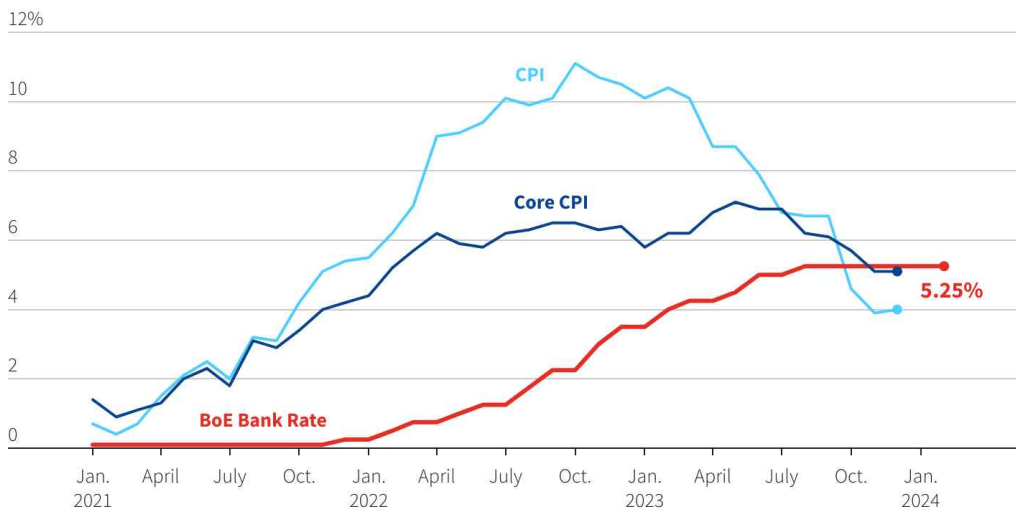
그는 "경제가 더 심각하게 악화되지 않는 한 중앙은행들은 상당히 점진적으로, 가격에 반영된 것보다 적은 양적완화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베스코의 시비터는 작년 말 주식과 함께 랠리를 펼친 국채는 "현재로서는 상당히 가치가 있다"며 수익률이 상승하면 매수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삭소은행의 수석 채권 전략가인 알테아 스피노찌는 중앙은행들이 "긴축 편향을 버렸다"며 "금리 인하가 언제 시작될지 모르기 때문에 채권이 더 이상 상승할 수 없다"고 말했다.

## BoE holds Bank Rate, for now

The Bank of England kept interest rates unchanged but softened its stance about when it might cut them.



Note: Inflation data through December 2023.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Feb. 1, 2024 | By Sumanta Sen

주요 중앙은행들이 다음 조치를 취하기 전에 경제 데이터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의 운명은 이제부터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달려 있다.

시장은 연말까지 연준과 ECB의 금리 인하 예상폭을 각각 약 145bp로 반영하고 있으며, 영란은행은 100bp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그래프)-주요 중앙은행들, 금리 인하 향해 방향 선회

런던, 2월2일 (로이터) -

인플레이션이 완화됨에 따라 주요 중앙은행들이 앞으로 몇 달 안에 금리가 낮아질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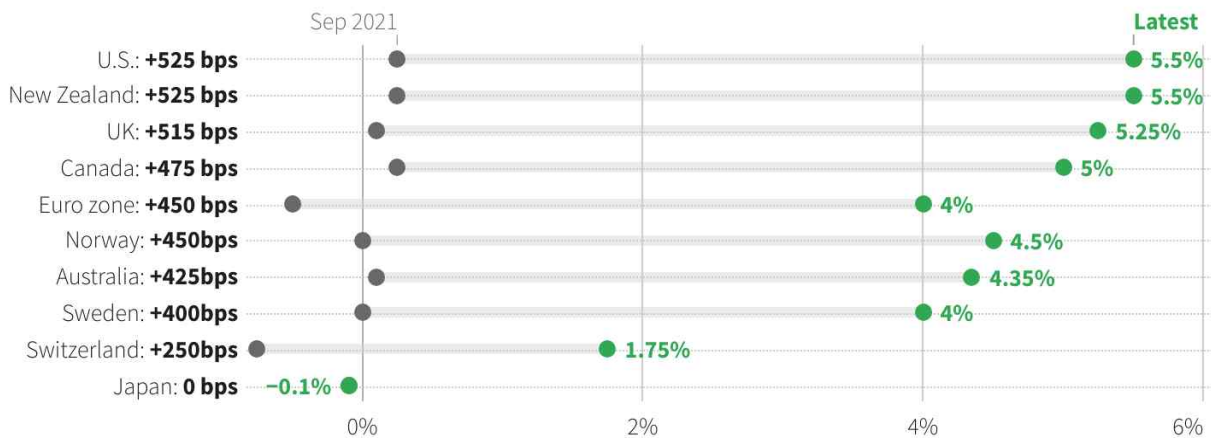
이번 주 미국, 영국, 스웨덴은 모두 금리를 동결했고,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하가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트레이더들은 연준과 유럽중앙은행(ECB)이 올해 중반쯤 정책 완화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일본은 조만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

다음은 이번 긴축 사이클에서 금리를 많이 인상한 순으로 주요 중앙은행들의 현재 스탠스를 정리한 것이다.

## The race to raise rates is over for now

Change in policy rates by central banks overseeing the 10 most traded currencies.



Note: As of January 25, 2024.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Jan. 25, 2024 | By Pasit Kongkunakornkul

### 1) 미국

연준은 31일 금리를 5.25-5.5%로 동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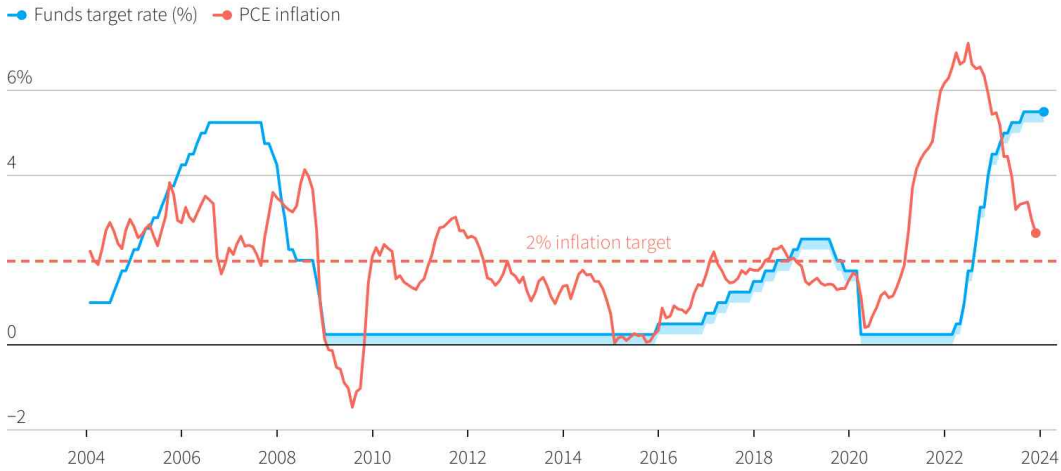
제롬 파월 의장은 금리가 정점에 도달했으며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짐에 따라 앞으로 몇 달 안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년 간의 인플레이션 싸움에서 승리를 선언하지 않아 3월19~20일 회의 금리 인하에 대한 투자자의 기대를 꺾었다.

이제 트레이더들은 5월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144bp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Fed sees lower rates on the horizon

The Fed says rates are likely to move lower in coming months but has pushed back on talk of a move as early as March.



### 2) 뉴질랜드

뉴질랜드 중앙은행은 지난해 11월 금리를 15년 만에 최고치인 5.5%로 유지했고, 2월28일 회의에서 다시 금리를 동결한 후 빠르면 5월에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4분기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예상치인 5%를 밑돌았다.

## Falling inflation to aid RBNZ

The RBNZ meets in late February and is likely to welcome easing inflation pressur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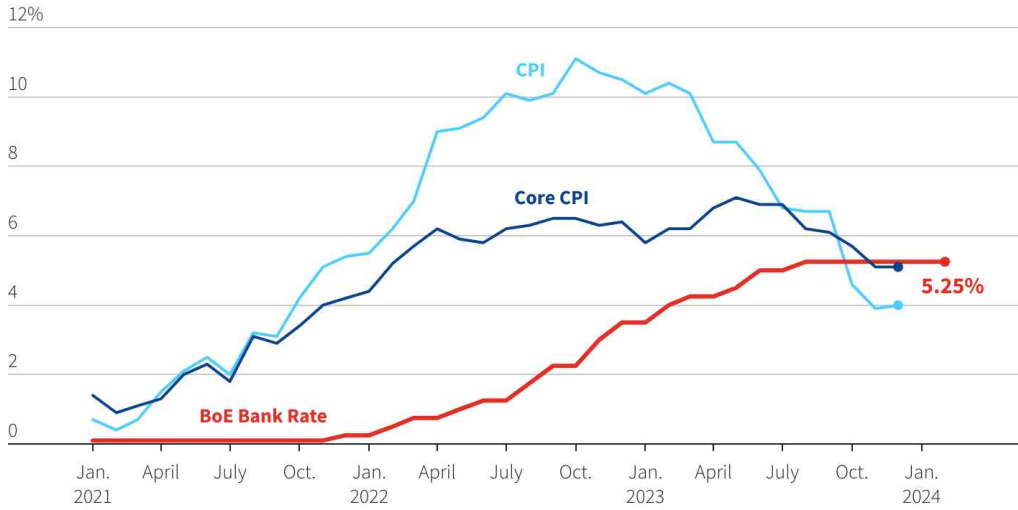
### 3) 영국

영란은행은 1일 금리를 거의 16년 만의 최고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인플레이션 둔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줬고, 정책위원 중 한 명은 2020년 이후 처음으로 금리 인하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란은행 통화정책위원 2명이 금리 인상을 지지하면서 시장은 금리 인하 베팅을 줄였다. 트레이더들은 6월에 기준금리가 0.25%p 인하될 가능성을 64%에서 약 50%로 낮췄다.

### BoE holds Bank Rate, for now

The Bank of England kept interest rates unchanged but softened its stance about when it might cut them.



Note: Inflation data through December 2023.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Feb. 1, 2024 | By Sumanta S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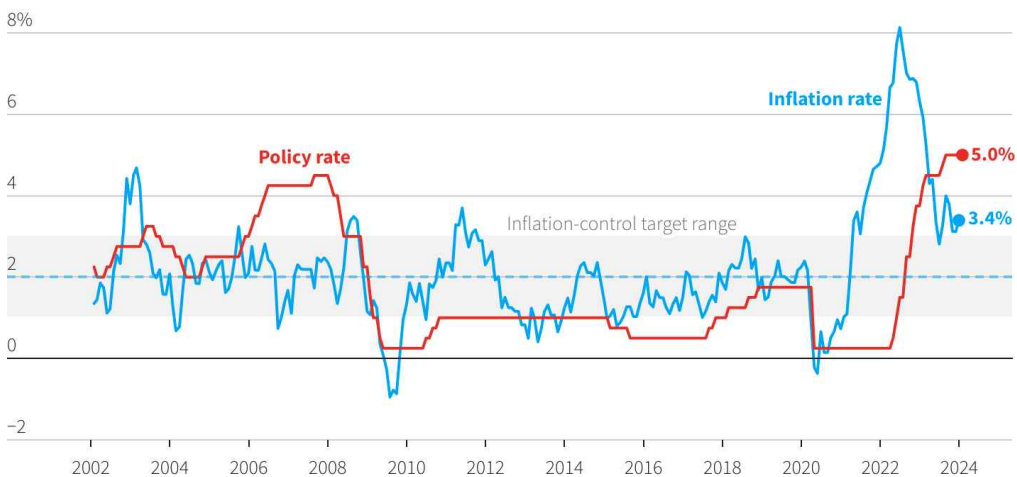
### 4) 캐나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1월24일 4차례 연속으로 금리를 5%로 동결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기초적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금리 추가 인상 여부보다는 금리를 언제 인하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은 6월까지 0.25%p 인하 가능성을 완전히 반영했다.

### Bank of Canada holds rates in January

The Bank of Canada (BoC) held its key overnight rate at 5% and said that while underlying inflation was still a concern, the bank's focus is shifting to when to cut borrowing costs rather than whether to hike again.



Note: Inflation data through December 2023. Data frequency is monthly.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Jan. 25, 2024 | By Riddhima Talwan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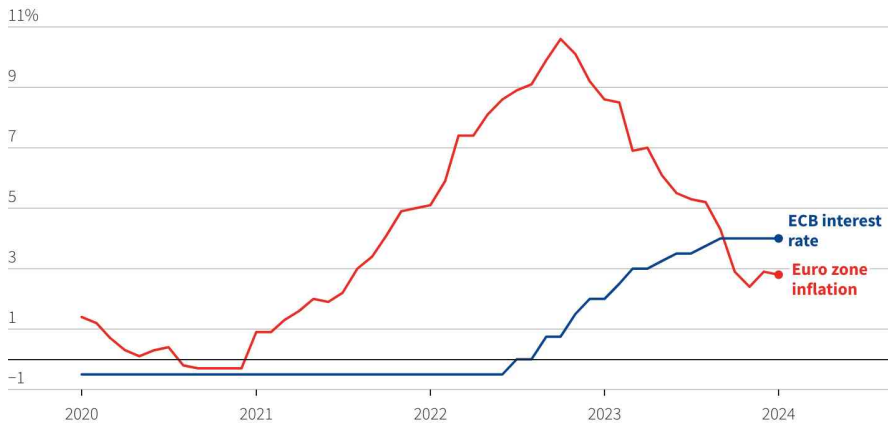
## 5) 유로존

ECB는 1월25일 금리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인플레이션에 대해 다소 누그러진 스탠스를 취함으로써 정책 완화를 고려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했다.

트레이더들은 4월에 25bp가 인하될 가능성을 약 90% 정도로 보고 있고, 연말까지 총 140bp가 인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금 시장에서는 ECB가 대형 중앙은행 중 최초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The ECB has also pivoted towards easing in the coming months

The ECB left its key rate unchanged at a record high in January.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Feb. 1, 2024 | By Sumanta S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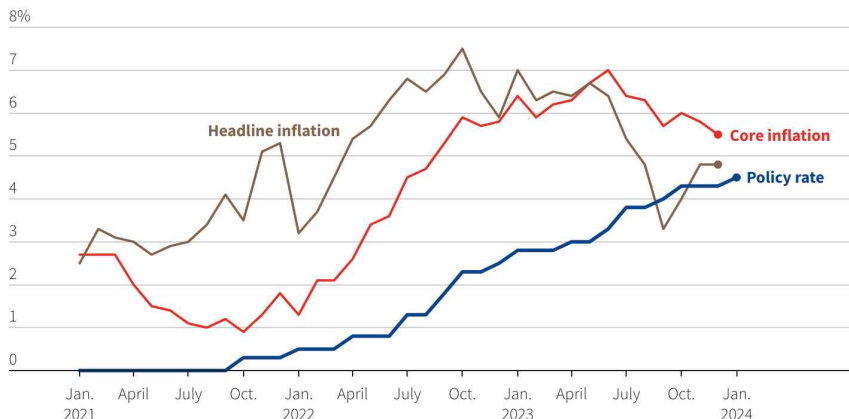
## 6) 노르웨이

12월에 깜짝 금리 인상을 단행한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1월25일 기준금리를 4.50%로 동결했으며, 금리가 "당분간" 동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노르웨이의 12월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15개월 만의 최저치인 5.5%로 떨어졌다. 노르웨이 크로네 강제로 수입 물가는 낮아질 것이다.

### Norges Bank keeps policy rate unchanged

Norway's central bank kept its policy rate unchanged at 4.50% and said the cost of borrowing would likely stay at that level for some time ahead.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Jan. 25, 2024 | By Sumanta S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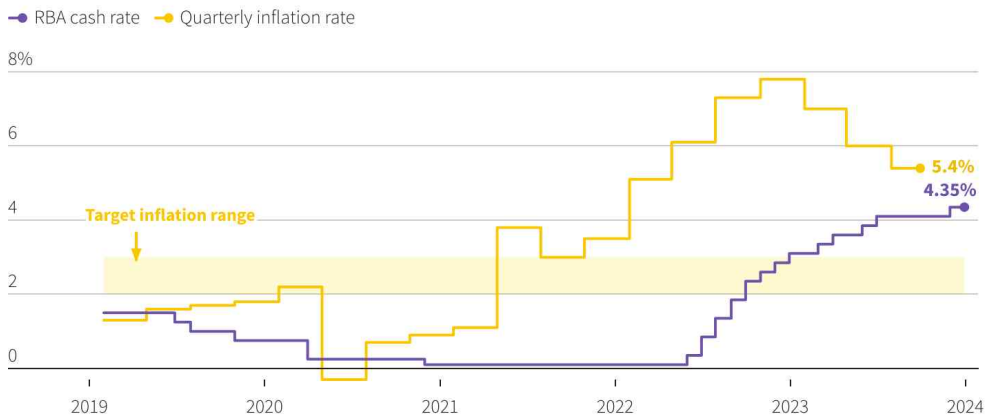
## 7) 호주

호주 중앙은행은 12월 금리를 4.35%로 동결했다. 현재 시장은 9월부터 금리가 인하되리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지만, 12월 회의록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금리 인상을 다시 고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데이터에 따르면 호주는 주요 무역 상대국인 중국의 경제 여건 불안에 여전히 취약한 반면, 비즈니스 여건과 인플레이션 압력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Eyes on RBA's policy meet

A fall in quarterly inflation numbers released later this month could shift the focus on rate cuts during the central bank meet in February.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Jan 23, 2023 | By Vineet Sachde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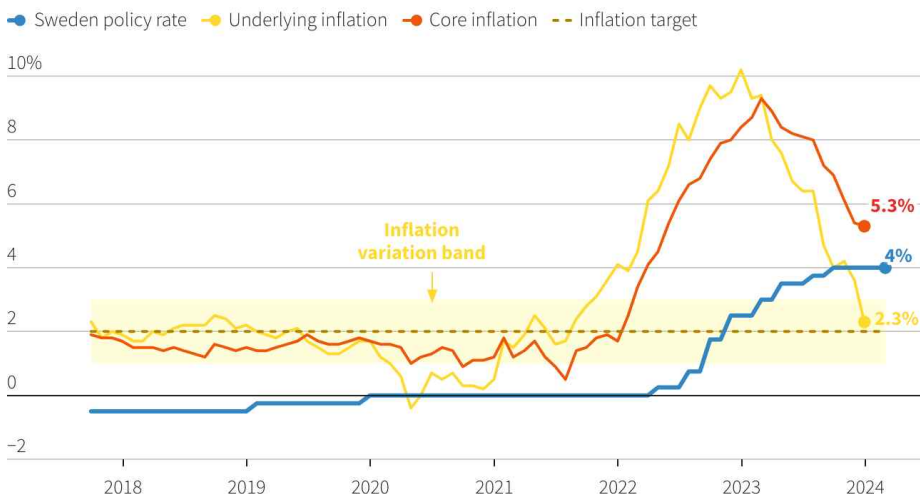
## 8) 스웨덴

1일 기준금리를 4%로 동결한 스웨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될 경우 첫 금리 인하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코노미스트들은 5월이나 6월에 정책 완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Riksbank holds rates, sees easier policy ahead

Sweden's central bank kept its key interest rate unchanged at 4.00% on Thursday.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Feb. 1, 2024 | By Riddhima Talwani



## 9) 스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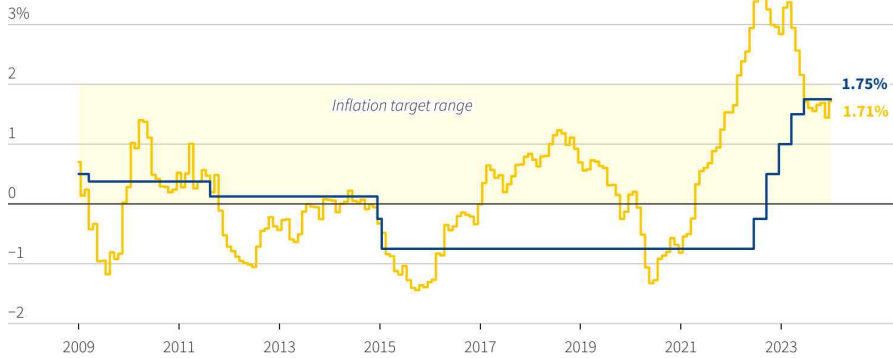
2023년 초 이후 유로 대비 5% 절상된 스위스프랑 강세는 스위스의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해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였다.

12월 인플레이션율은 7개월 연속으로 스위스 중앙은행(SNB)의 목표치인 2%를 밑돌았다. 토마스 조던 중앙은행 총재는 현재 1.75% 수준에서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 SNB signals end of hikes

Further interest rate hikes from the Swiss National Bank are not needed as SNB expects inflation to be within the target range in 2024 and 2025, SNB Chairman told a Swiss newspaper in an interview on Jan. 19, 2024.

SNB policy rate | CPI (Y/Y)



Note: Data through December 2023.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Jan. 25,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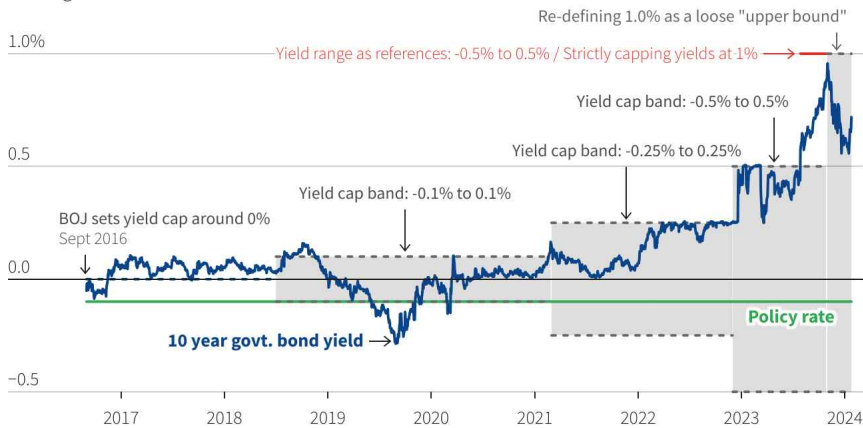
## 10) 일본

일본은행(BOJ)은 1월24일 초완화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했지만, 대규모 부양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지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 곧 마이너스 금리를 종료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로이터 조사에 응한 이코노미스트들은 BOJ가 4월까지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의 근원 인플레이션은 12월에 두 달 연속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목표치인 2%를 상회했다.

### BOJ keeps ultra-loose policy intact

The BOJ on Tuesday left its short-term rate target at -0.1%, but markets suspect a policy shift in coming.



Source: LSEG Datastream | Reuters, Jan. 25, 2024 | By Riddhima Talwani

(신안나 기자)

(( anna.shee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달러/원 월간 전망 ①)-위·아래 뚫리기 보다는 변동성 장세 무게

서울, 2월2일 (로이터) 박예나·문윤아 기자-

달러/원 환율은 2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가늠할 경제지표, 중국 경기 개선 여부 등을 살피며 최근 레인지 부근에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301.2-1,349.1원으로 제시됐다.

달러/원 상단과 하단을 막는 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환율이 1,300원대 초·중반을 중심으로 한 최근 레인지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달러/원 하방 요인으로는 최근 레인지 상단에서 확인된 네고 물량과 당국 경계감과 함께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에 따른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을 중심으로 한 외국인 수급 유입이 꼽혔다.

반면 여전한 중국 불확실성과 중동 지정학적 불안은 달러/원 하단을 막을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최근 뉴욕커뮤니티뱅크(NYCB)가 상업용 부동산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면서 재무상한 미국 지역은행 이슈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일각에서는 지적했다.

한편 연방준비제도(연준) 1월 정책회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일부 시각차가 존재했다.

연준이 3월 금리 인하 기대를 일축했지만 성명서 문구를 바꾸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점이 연내 금리 인하 기대를 강화하면서 달러/원 하향 안정을 이끌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금리 인하가 가시화되면 고용시장 둔화와 물가의 2% 목표치 수렴 여부가 확인돼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기관명	설문참가자	예상환율 범위	
신한은행	조가영 과장	1312	1350
우리은행	박범석 과장	1290	1340
하나은행	고규연 팀장	1305	1345
DGB대구은행	이응주 차장	1310	1360
IBK기업은행	이철우 과장	1290	1340
KDB산업은행	임준영 과장	1300	1350
NH농협은행	전병철 과장	1300	1370
키움증권	김유미 연구원	1300	1340
DB금융투자	문홍철 파트장	1315	1356
SK증권	안영진 연구원	1290	1340
평균		1301.2	1349.1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달러/원 월간 전망 ②)-위·아래 뚫리기 보다는 변동성 장세 무게

서울, 2월2일 (로이터) 박예나·문윤아 기자-

달러/원 환율은 2월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시기를 가능할 경제지표, 중국 경기 개선 여부 등을 살피며 최근 레인지 부근에서 변동성 장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이 외환시장 전문가 1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2월 환율 예상 범위(평균)는 1,301.2-1,349.1원으로 제시됐다.

다음은 전문가별 코멘트

▲ 조가영 과장(신한은행)

"1월 FOMC에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축되고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달러/원 환율은 하향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위험선호 심리를 자극한 점도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우리보다 빨리 물가 목표 2%를 달성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금리정책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도 원화 강세를 뒷받침한다. 다만, 여전히 중국 경제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중동발 지정학적 불안 요인 등은 달러/원 하단을 지지할 전망이다."

- 예상 거래범위 1,312-1,350

▲ 박범석 과장 (우리은행)

"연초부터 강했던 달러 강세 흐름이 2월에는 상대적으로 꺾일 것으로 판단된다. 1월 FOMC에서 3월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춰졌지만 성명서 문구 변화에 따라 연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져 미국 국제 금리가 하락했고, 2월 지표들을 살펴봐야 하겠지만 1월 CPI나 PCE에서도 물가 상승 둔화가 지속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저PBR주 가치 제고 정책 기대감에 따라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계속 유입되고 이에 달러/원 상단 1,340원대를 확인하며 하락 트렌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중국 경기 우려 상존에 따른 위안화 약세 흐름은 환율 하단폭을 제한할 전망이다."

- 예상 거래범위 1,310-1,340

▲ 고규연 팀장(하나은행)

"금리 인하 기대감이 되돌려지고 대만 및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에 작년 하반기의 환율 하락분이 되돌려졌으나, 1,300원 중반에서 네고와 당국 경계감 확인하며 1,350원 저항선을 공고히했다. 금리 인하는 속도의 문제일뿐 방향은 맞다는 시장 인식 속에 1,350원 근처 고점 인식과 경계감 여전할 것으로 보이고 수급상 설 네고와 중공업 등 고점 매도 매물을 감안 계절적인 에너지 업체 수요가 상쇄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달의 환율 급등세를 다소 되돌릴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중국 부동산 이슈와 경기 부진 우려가 남아있어 1,300원을 뚫고 내려가기에는 모멘텀이 부족해 보인다."

- 예상 거래범위 1,305-1,345원

▲ 이용주 차장 (DGB대구은행)

"1월 연준 이벤트 불확실성은 해소됐지만, 고용시장 악화를 확인하기 전까지 물가가 목표치로 수렴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연준 스탠스와 중국 경기둔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을 감안할 때 달러 롱 심리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역내 수급도 아직 크게 달라진게 없어 보인다."

- 예상 거래범위 1,310-1,360

▲ 이철우 과장(IBK기업은행)

"파월 의장의 매파적 발언에 시장은 면역됐고 물가, 경기, 고용 데이터를 봐도 파월이 앞으로 매파적으로 발언하기에는 점점 어려워지지 않을까 한다. 한국 금리는 고정 상수로 두고 미국 금리가 점진적으로 하락한다고 기대한다면 한미 금리차 축소에 따라 스왑포인트는 우상향, 환율은 점진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미국 지역은행 부실에 따른 금융권의 약한 고리가 이슈가 되거나 중동 분쟁이 더 확산될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리스크 오프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 예상 거래범위 1,290-1,340

▲ 임준영 과장(KDB산업은행)

"환율은 연중 레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등락할 것으로 전망한다. 3월 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페드위치 등에서는 여전히 반영하고 있지만, 외환시장에서 동결 가능성은 가격에 충분히 반영되어있다고 판단되며 추가 되돌림 작업이 없어 환율은 전고점을 상향돌파할 모멘텀은 당분간은 부족할 듯하다. 수급 상으로도 네고가 적극 유입되고 있기도 하다. 다만,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중국, 국내 부동산 경기에 대한 우려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잠재적으로 환율의 상방 변동성을 자극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남아 있다."

- 예상 거래범위 1,300-1,350원

▲ 전병철 과장(NH농협은행)

"미국 조기금리인하 가능성 축소와 글로벌 지정학 리스크 및 주요국 대비 미국 경제 성장 우위 등에 달러/원 환율은 상방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본다."

- 예상 거래범위 1,300-1,370원

▲ 김유미 연구원(키움증권)

"연준 통화정책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고, 뚜렷한 모멘텀 없어서 당분간 1,300원 초반대에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될 수 있다."

- 예상 거래범위 1,300-1,340원

▲ 문홍철 파트장(DB금융투자)

"달러 부족이 지속되면서 달러 단기금리의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미국 재정증권 발행이 줄어들고

순발행이 급감하면서 달러 유동성이 감소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로 작용한다. 동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당장 연준의 양적완화와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국내 반도체 수출 경기의 흐름도 예상보다는 빠르게 올라오지 않으면서 수급적으로도 환율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콩발 ELS의 청산에 따른 헤지 물량도 향후 완전 청산까지 홍콩 주식의 흐름에 따라서 환율이 상하 변동성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종합할 때 달러 부족이 강달러를 만들어 환율에 단기적으로 상방압력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미국의 고용지표는 노동부 창업, 폐업 모델 때문에 당분간 과장된 수치가 도출될 수 있어 강달러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진다."

- 예상 거래범위 1,315-1,356원

#### ▲ 안영진 연구원(SK증권)

"글로벌 달러는 통화정책 이벤트를 소화하며 위아래 변동성이 제한됐다. 그 과정에서 디스인플레이션과 균형을 찾아가는 경기 인식을 반영해 완만한 하향 안정 흐름을 예상한다. 또 다른 축인 중국 매크로/위안화와 관련해서도 PMI 지표의 개선, 당국의 시장 안정 의지, 3월 양회를 앞둔 정책 기대 등이 추가 하방 리스크를 제어한다. 국내 측면에서는 수출 증가세와 경상 흑자 지속을 재확인하며 외화 수급 조건이 개선되고, 이에 금융시장의 예기치 못한 이슈가 아닌 이상 달러/원의 하향 안정 추이를 예상한다."

- 예상 거래범위 1,290-1,340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종합)-1월 수출 20개월 만의 최대폭 증가... 반도체·대중 수출 청신호

서울, 2월1일 (로이터) -

1월 수출이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고 이와 함께 대중국 수출이 20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는 등 수출 경기 회복세가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2024년 1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수출은 546.9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18.0% 늘어 2022년 5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한편 수입은 543.9억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7.8% 감소했고, 무역수지는 3억달러 흑자로 규모는 작년 6월 이후 최저치로 축소됐지만 8개월 연속 흑자세는 이어졌다.

#### ▲ 반도체·대중 수출 개선

올해 첫 달 반도체 수출은 93.7억달러로 전년비 56.2% 급증해 2017년 이후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산업부는 고부가메모리 판매 확대 및 수급 개선으로 메모리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AI 서버 투자 확대 등 수급여건도 개선된 영향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중국 수출은 106.9억달러로 전년비 16.9% 늘어 2022년 5월 이후 플러스 전환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대중국 수출 개선을 이끈 것으로 풀이됐다.

대미 수출은 전년비 26.9% 증가한 102.2억달러로 역대 1월 중 최고 실적을 기록한 한편 대EU 수출도

전년비 5.2% 증가해 1개월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올해 1월 수출 결과가 양호한 데는 작년 기저효과에 더해진 조업일수 증가 영향도 배제할 수 없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수출액은 전년비 5.7% 증가했다.

박성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반도체가 작년 1-3월이 워낙 최악이었어서 기저효과 때문에 좀 더 봐야 한다. 재고율 개선되고 있고 좋아지는 흐름이기는 하지만 개선 강도가 관건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전망도 나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고 최악은 지나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대외여건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중국 수출이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수출 플러스, 무역수지 흑자, 반도체·대중국 수출 플러스 등 수출 회복의 네가지 퍼즐이 완벽히 맞추어 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출 회복세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총력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예나 기자, 추가취재 이지훈 기자)

(( yena.park@thomsonreuters.com ; +82(010) 62147029;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국내전문가반응)-3월 아니더라도 멀지 않은 금리 인하... “매파로만 해석하기 어려워”

서울, 2월1일 (로이터) -

국내 전문가들은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월 정책회의에서 금리 정책 기조가 인하로 전환됐음을 더욱 분명하게 한 것으로 평가하며 금리 인하 시기가 그리 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연준은 31일(현지시간)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다.

다만, 연준은 성명에서 인플레이션이 2%에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이 있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3월 회의 때까지 위원회가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얻는 수준에 도달할 것 같지는 않다"며 조기 금리 인하 기대에 선을 그었다.

이 같은 발언에 시장은 3월 금리 인하 기대를 빠르게 축소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준이 정책 기조가 금리 인상에서 금리 인하로 전환됐음을 기존보다 명확하게 드러냈고 3월 양적긴축(QT) 논의 가능성도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전반적으로 매파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 시기를 판단하기 위해 물가, 고용 등 경제지표 둔화 여부를 추가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최근 물가와 고용지표 흐름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가 그다지 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르면 2분기 또는 하반기 초반에 첫 금리 인하가 이뤄지리라는 전망을 유지했다.

### ▲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1월 FOMC회의 결과는 중립 수준으로 평가된다. 시장이 희망했던 3월 조기 금리인하 확률은 낮아졌지만 5월 혹은 6월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기대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결과였다는 판단이다. 파월 의장도 밝힌 바와 같이 올해 금리인하가 기정 사실화된 상황에서 금리인하 시점이 2분기일지가 관건이다. 결국 향후 1~2개월내 발표된 물가 안정과 고용지표 둔화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리인하의

라스트 마일이 짧을지 아니면 좀더 길어질지가 향후 발표될 지표에 달려있다. 다만, 최근 물가와 고용지표 흐름을 고려할 때 짧은 라스트 마일이 될 공산이 높다는 점에서 5월 혹은 6월 금리인하 시작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한다."

▲ 공동락,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

"기준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인하 기조로 전환할 것임을 뚜렷하게 밝히면서도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의견 표명이 반복됐고, 기자회견 역시 이를 둘러싼 공방전이 이뤄졌다. 이처럼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둘러싼 논의가 1월 FOMC에서도 지속됐다면, 다음 3월 회의에서도 금리가 동결될 확률이 더 높다고 평가한다. 따라서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횟수를 3회로 제시한 기존 전망을 유지하고, 인하 개시 시점도 2분기부터라는 기존 전망을 변경하지 않겠다."

▲ 이정훈, 유진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

"비록 예상대로 3월 인하 가능성이 더 낮아졌지만, 금리 인하는 그다지 멀리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5-6월 회의에서 첫 금리 인하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다. 지난해 12월 연준이 전망한 올해 4분기 Core PCE 물가상승률 전망 2.4%를 2분기에 조기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다만 인플레 전망에 수에즈 운하 이슈라는 변수가 남아있다. 현재는 과거 운임 급등 당시처럼 수요가 폭발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상품 인플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이승훈, 메리츠증권 이코노미스트

"올해 하반기(7월)에 가서야 연준이 금리인하에 착수할 것이며, 연말까지 FFR이 100bp 인하할 것이라는 기본 견해를 유지한다. 파월 의장의 예상치 못한 노동시장 약화는 인하 조기화, 경직적 인플레 현실화는 인하 지연 조건이라는 언급까지 고려한다면, 결국 임금상승률 둔화가 다시 추세로 자리잡고 경직적 인플레가 완화된다는 증거가 있어야 금리인하 여건 충족 여부를 논할 수 있으리라 본다. 한편, 연준 B/S 축소 속도조절에 대한 논의는 3월 FOMC에서 구체화하기로 했다.당사의 기본 시나리오는 3Q24 속도조절-1Q25 QT 중단-3Q25 연준 국채매입 재개이다. 속도조절과 금리인하가 같은 시점에 이루어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 전규연, 하나증권 이코노미스트

"금년 6월 금리 인하 시작 전망을 유지한다. 한편 양적 긴축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잘 진행되어 왔고 이제 속도에 대해 고민할 시점이 왔으며 3월 회의에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QT 속도조절이 상반기 중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속도조절은 단기자금시장의 충격 없이 연준의 계획대로 자산을 축소하기 위한 조치이며, 금리 정책과는 독립적인 통화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원리상 이를 완화적으로 간주할 이유는 없다. 다만 속도조절과 금리 인하가 비슷한 시기에 이뤄지며 시장이 이를 보다 비둘기파적으로 인식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 임재균, KB증권 애널리스트

"파월은 조기 금리 인하 기대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조기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3월 FOMC까지는 2차례의 CPI와 1차례의 PCE, 그리고 5월 FOMC까지는 추가 1차례, 6월 FOMC는 추가 2차례의 CPI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운데, 물가 둔화가 진전되거나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빠르게

균형점으로 이동한다면 연준은 상반기 중 금리인하를 고려할 것이다. 또한, 12월 FOMC에서 예상한 2024년 3차례 인하 전망보다 더 많은 전망도 고려할 것이다."

#### ▲ 김영환, NH투자증권 전략가

"3월 금리인하 기대가 낮아짐에 따라 미국 주식시장 하락했다. 주식시장이 이러한 눈높이 조절을 소화하는 데는 다소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리인하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가 다소 과도했기 때문에 금융시장의 눈높이 조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 길게 바라보면 오히려 실제 금리인하 시점에는 주식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을 엿본 회의였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기둔화 없는 물가안정'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이번 연준의 금리인하가 '경기침체 인정'이라기보다는 '보험성 금리인하'가 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다."

(문윤아 기자, 편집 박예나 기자)

(( younah.moon@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

### • (해외전문가반응)-연준, 금리 동결... “첫 번째 금리 인하 위해서는 시간 더 필요할 듯”

뉴욕, 2월1일 (로이터) -

연방준비제도가 31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정책회의를 마치고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다.

이날 연준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완화시키고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오랜 언급을 삭제하는 등 정책 성명을 통해 향후 몇 달 내에 금리를 인하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했지만,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인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목표 범위를 축소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연준 관리들이 3월에 열리는 연준의 다음 회의에서 금리를 낮출 수 있을 만큼의 자신감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시장의 3월 인하 전망이 축소됐다.

다음은 이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 ◆ 키이스 레너, 트루이스트웰스 수석 시장 전략가

"파월 의장은 유연성을 일부 유지하고 있으며, 여전히 연준이 완화적 스탠스로 나아가고 있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시장은 많이 요동쳤지만 전반적으로 예상에 부합하는 수준이며 큰 변화는 아니다. 그러나 그가 3월 금리 인하에 대해 보다 직접적이고 강하게 반발한 것은 부정적이다."

#### ◆ 빌 스트라줄로, 벨커브트레이딩 수석 시장 전략가

"주식시장을 볼 때 기본적으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는 상당한 금리 인하가 없다면 시장이 랠리를 펼칠 수 없다는 것, 즉 경제가 약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연준의 말을 빌리자면, 경제가 견고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노동시장이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통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난 이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경제는 양호하고 견고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으며 노동 시장은 여전히 강해 3개월 또는 5개월 전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금리 인하가 지금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

◆ 시마 샤, 프린서펄에셋매니지먼트 수석 글로벌 전략가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포워드 가이드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노동 시장과 경제 활동 지표의 호조로 인해 금리 전망에 약간의 주저함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기초 경제가 매우 견고한 이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시 높아질 위험도 무시할 수 없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이 중요하다."

◆ 티에리 앨버트 위즈먼, 뉴욕 맥쿼리 글로벌 외환 및 금리 전략가

"트레이더들은 연준의 도비시한 발언을 예상했으나 연준은 그렇지 않았다. 연준은 연방기금금리의 다음 방향을 모른다는 것을 기꺼이 인정하면서 전망을 미리 예단하지도 않을 것이다. 실제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지속가능한 2%가 될 때까지 정책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는 새로운 언어이며 부정적이고 매파적인 언어이다."

◆ 칼 샤모타, 코페이 수석 시장 전략가

"가까운 시일 내에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점에서 시장은 약간의 실망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전 성명서에는 추가적인 정책 긴축 가능성을 언급하는 문장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위원회가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만 명시됐다. 이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립적인 문구이며, 많은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이 경기 확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을 조정할 것임을 시사하는 문구를 넣으리라 기대했었다."

◆ 브라이언 제이콥슨, 어넥스웰스매니지먼트 수석 이코노미스트

"연준은 리스크가 더 나은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말함으로써 금리 인하를 위한 베이비 스텝을 내딛었다. 3월은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가능하게 움직인다는 충분한 확신을 갖기에는 너무 이르다. 긴축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

◆ 마이클 브라운, 페퍼스톤 시장 애널리스트

"연준은 시장에 반영된 것처럼 빠르게 완화하기 위해 서두르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연준의 목표가 '더 나은 균형으로 이동'이더라도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위해서는 여전히 확실한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더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하다."

(김지연 기자)

(( jiyoun.kim@thomsonreuters.com ))

(c) Copyright Thomson Reuters 2024. Click For Restrictions - <https://agency.reuters.com/en/copyright.html>